

POLITICS

2025년 6월 17일 화요일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 대표 8월 2일 선출한다

국힘 원내대표 3선 송언석
대여 투쟁·전대 준비 과제

국민의힘 새 원내 대표에 3선 송언석 (62·경북 김천·사진) 의원이 16일 선출됐다.

송 신임 원내대표는 107석 제1야당의 원내 사령탑으로서 거대 여당의 각종 입법 드라이브에 맞서야 하는 동시에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준비 등 대선 패배 이후 당내 수습이라는 과제를 안게 됐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선거에서 총 투표수 106표 가운데 60표를 얻으며 김성원 (3선·경기 동두천) 의원과 이현승 (4선·부산 부산진구) 의원을 제치고 당선됐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를 확보함으로써 결선 투표 없이 승리를 확정했다.

김 의원과 이 의원은 각각 30표, 16표를 얻었다.

국민의힘의 전통적 텃밭인 TK에 지역 구를 둔 송 의원은 계파색이 비교적 옅다는 평가를 받지만, 윤석열 정부 당시 법친 윤계로 분류된 바 있다. 이번 선거에서도 옛 친윤계 등 구 주류와 TK 의원들의 지지를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연합뉴스

전국체육대륙전 성공 이끈
자원봉사자 해단식 개최

전남도는 16일 목포신안비치호텔에서 ‘2025 전국생활체육대륙전’의 성공 개최를 이끈 자원봉사자의 노고를 격려하고 감사를 전하는 자원봉사자 해단식을 개최했다.

‘함께한 땀, 함께 만든 감동’이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된 해단식에는 전남 각지에서 활약한 자원봉사자와 관계자 400여 명이 참석해 감동과 보람의 순간을 함께 나눴다.

행사는 판페라 공연으로 문을 열어 축제 분위기를 더했다. 이어 자원봉사자 활동상을 되돌아보는 활동영상 상영, 각 시군을 대표한 체험 사례 발표, 대회 기간 모범적으로 활동한 유공 자원봉사자 표창 순으로 진행됐다.

자원봉사자는 경기장 안내, 의료지원, 홍보, 종합상황실, 개·폐회식 현장 등에서 헌신적으로 활동하며 전국에서 방문한 선수단과 관람객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특히 해단식에서는 지역사와 취약계층을 위한 ‘온기나눔 키트’ 제작 및 전달 행사 등 특별행사로 마련돼 자원봉사의 의미를 더했다.

자원봉사자는 여름 이불과 함께 자신이 직접 작성한 응원 메시지를 담은 ‘온기엽서’를 동봉한 키트를 정성껏 포장해 전달하는 등 체전 감동을 지역 소외된 이웃과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명창환 부지사는 “감동체전의 주역인 자원봉사자의 따뜻한 손길이 전남을 빛내고, 체전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며 “자원봉사자의 훈훈한 온정과 성숙한 참여 의식에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2023년 전국체육대회, 2024년 전국소년체육대회, 2025년 전국생활체육대륙전까지 3년 연속 전국단위 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면서 지역 위상을 확고히 다졌다. 이 모듬 현장에는 자원봉사자 (연인원 1만 3528명)가 함께하며 대회를 ‘감동체전’으로 이끄는 숨은 주역 역할을 톡톡히 했다.

전남도는 이번 해단식을 끝으로 체전 자원봉사 활동을 공식적으로 마무리하고, 앞으로도 자원봉사의 지속적인 참여 문화 조성으로 지역사회 성장에 기여하도록 관심과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다음달 10일 후보등록...26일 호남 순회경선
대의원 15%·권리당원 55%·일반국민 30%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8월 2일 전국당원 대회를 열고 차기 당 대표를 선출한다.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 (위원장 이춘석)는 16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날이 결정했다고 전준위 대변인인 박지혜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번 전당대회는 전임 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월 대선 출마를 위해 사퇴하며 치러지는 보궐선거다.

최근 김민석 전 수석최고위원이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공석이 된 최고위원 자리도 함께 뽑는다.

이번 전당대회 명칭은 ‘제2차 임시전국당원대회’로 정해졌다.

이춘석 전준위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신속성과 당원 주권이라는 두 가지에 방점을 찍고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하면서 함께 손발을 맞출 당 지도부를 선출하겠다”고 말했다.

회의에는 부위원장을 맡은 소병훈·송옥주 의원, 총괄본부장 임호선 의원을 비롯해 위원인 전준호·정일영·황명선·박지혜·황명선 의원 등을 비롯해 김기현 경산시 지역위원장, 김한나 속초갑 지역위원장, 이현 부산지역위원장, 봉건우 대학생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에 선출하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의 임기는 내년 8월까지다. 임기 중 사퇴한 전임자의 잔여 임기만 채우기 때문이다.

당 대표 후보자나 최고위원 후보자가 각각 3명 이상일 경우 다음 달 15일 예비경선이 열린다.

전국 순회 경선 일정은 △7월 19일 충청 △7월 20일 영남 △7월 26일 호남 △7월 27일 수도권 (경기·인천) △8월 2일 서울·강원·제주다.

후보자 등록일은 다음 달 10일이다. 선거인단 반영 비율은 당 강령에 따라



16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이춘석 위원장 (왼쪽 세 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의원 15%, 권리당원 55%, 일반 국민 30%로 결정됐다. 일반 국민 여론조사는 안심번호를 통해 여론조사 기관 2곳이 실시하기로 했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당원 주권 시대에 맞게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의 가치를 조금 더 분명하게 반영해 보자는 취지에서 지난해부터 강령에 따라서 선거인단 반영 비율을 결정하고 있다”고 설명

했다.

또 “후보자가 3명 이상일 때 첫 온라인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3위 후보를 제외하고 후보 2명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는 결선투표도 필요하면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3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당대표 선거에 결선투표제 도입 △최고위원회 보궐선거 방식을 기존 중앙위원 100%에서 중앙위원 50% 권리당원 50% 합산 방식으로 변경 △임시 전당대

회를 개최할 경우 전준위 설치 시한을 후보 등록 개시 50일 전에서 30일 전으로 축소하는 내용 등을 개정했다.

이번 당 대표 선거에는 정청래 의원이 출마 선언을 했고, 박찬대 전 원내대표 등도 유력 당권주자로 거론되고 있다.

정 의원은 지난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신명을 바치겠다”며 당 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정 의원은 “이 대통령의 역명이 곧 정청래의 운명이다. 이재명이 정청래이고, 정청래가 이재명”이라며 “시대적 과제는 조속한 내란 종식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으로, 제가 당 대표가 돼 그 임무를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전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고별 기자회견’에서 당권 도전 계획과 관련해 “주변에 의견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서 솔직히 고민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박 전 원내대표 측 관계자는 “많은 분이 출마하라고 얘기하는데 신중하게 하면 좋겠다”는 애기도 있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고 말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지방정가

명진 ‘시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 제정

광주지역 유아들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초·중·고로 연계되는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해 유아교육의 공공성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제도적 지원 근거가 마련된다.

명진 광주시의원 (더불어민주당·서구2·사진)이 발의한 ‘광주시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안’이 16일 제332회 광주시 제1차 정례회 본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에는 유아교육 진흥을 위한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 교육 과정 운영을 위한 교재·교구 개발과 보급 지원, 유치원 운영 실태에 대한 평가, 방과 후 과정 운영 등의 지도·감독 등의 내용이 담



겨 있다.

저출산과 학생수 감소로 영·유아 교육과 돌봄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유보통합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광주시 유아교육의 발전을 위한 법률적 기반 마련에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명 의원은 “조례안 제정이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해 유아들이 기관에 관계없이 차별받지 않고 양질의 교육·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평등한 교육 환경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승기 기자 sky@

이명노 “앓을 수 없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

이명노 광주시의원 (더불어민주당·서구3·사진)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앓은 자세를 유지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 등 ‘비밀채어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및 이후 개정을 통한 내용의 반영에 추진됐다. 개정 내용으로는 앓은 자세를 유지하기 어려운 교통약자에 대해 이동식 간이침



대를 장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에 표준 휠체어만을 기준으로 했던 탑승설비 규정을 보완해 교통약자의 편의를 확대했다.

이 의원은 “앓지 못하는 중증 장애인들은 그간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는 현실에 놓여 있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반영해 교통약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이동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승기 기자 sky@

정무창 ‘광주 문화도시조성 조례안’ 통과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정무창 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산구2·사진)이 발의한 ‘광주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1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의 핵심은 ‘문화권’, ‘문화소외계층’ 등에 대한 용어를 신설하고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문화권 보장을 위한 기반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정 의원은 “문화 향유를 위한 기존 정책들은 주로 기회의 확대 측면에서만 집중되어 왔으며, 문화권이라는 권리의 보장 측면에 대한 정책적 관



심이 상대적으로 미흡했다”며 “제대별, 계층별 특성을 감안하여 모든 시민의 문화권을 보장하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문화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광주시 공공기관 소유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문화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시민들이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문화적 도시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 할 것으로 보인다.

정승기 기자 sky@

전남도, 지역 자활센터와 저소득층 자립 지원

김영록 지사, 공공-민간 연계 자활사업 확대 등 강조

전남도는 16일 도청에서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전남지부 임원진과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어 도내 자활사업 운영 현황을 청취하고 저소득층 자립 지원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간담회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박철수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전남지부장 등 임원진 6명이 참석했다.

박철수 전남지부장은 “전남도의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매년 자활근로 사업비를 증액해 주고 타 시·도보다 먼저 시군 자활사례관리사의 인건비를 지급해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며 “복지 현장에서 고생하는 자활 종사자와 자활사업에 지속

적인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영록 지사는 “자활은 저소득층의 삶을 바꾸는 중요한 사회안전망”이라며 “정부의 ‘국민이 주인인 나라’ 기조에 맞춰 공공-민간 연계 자활사업을 확대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자활근로사업은 저소득층에게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해 탈수급을 지원하는 제도다. 전남도에선 1700여 명의 자활근로 참여자를 증액해 주고 타 시·도보다 먼저 시·아에서 종사하고 있다. 2024년에는 133명이 탈수급에 성공했다.

또한 2024년 전남에선 226개 자활사업

단이 89억의 매출을 달성했으며, 이 가운데 연 매출 1억 원 이상을 달성한 사업단은 총 22개에 이른다.

특히 지난해 전국 최초로 추진된 ‘소방방화복 세탁사업’은 전남형 자활사업으로 총 2억 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했고,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3년간 총 5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확보하는 성과도 거뒀다. 올해는 1억 5000만 원을 투자해 ‘다회용기 렌탈·세척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전남지부와 의 정례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주도형 복지 실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해서 발굴할 방침이다.

박정열 기자 holbul@gwangnam.co.kr

광주 외국인근로자 한국어교육 지원 강화

평동산단 ‘한국어교실’ 운영

광주시는 한국어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12월까지 평동산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한국어교실’을 운영한다.

‘찾아가는 한국어교실’은 교육장소까지 이동하는 데 어려움을 겪거나 정보가 부족해 학습을 하지 못한 외국인근로자를 위해 산업현장에서 한국어교육을 제공

하는 사업이다.

광주시는 앞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평동산단 17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국어교육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해 현장방문 교육을 희망하는 사업장을 모집했다.

그 결과 현재 평동산단 내 사업장 2곳에서 ‘찾아가는 한국어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오는 7월부터는 평동산단 내 평동종합비즈니스센터에서 산단 내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한국어교실을 운영할 예

정이다. 교육시간은 일요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다.

교육은 한국어능력시험 (TOPIK·토픽) 또는 생활한국어 과정으로 진행된 주 1회 2시간씩 10주간 운영한다.

토픽 교육을 실시함에 따라 고용허가제로 취업 중인 비전문취업 (E-9) 외국인근로자가 숙련기능인력 (E-7)으로 전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족을 동반한 장기체류가 가능한 숙련기능인력 (E-7)의 경우 비자 취득을 위해서는 토픽 2급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정승기 기자 sky@gwangnam.co.kr